서일학보 The Seoil University Press

Thursday, December 1, 2022 **No.298**

• **발행인** 김영철 • **주간** 고미숙 • **편집장** 이도해 •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90길 28 http://www.seoil.ac.kr/hakbo

서일대생의 2022

2022 복습하고 2023으로 나아가길

우리 대학 캠퍼스는 2년 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고요하던 강의실에는 학생들의 소리로 활기가 생겼고 공사 진행으로 삭막하던 캠퍼스에는 새로운 시설들이 자리 잡으며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을 보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우리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일대생의 2022〉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주 질문으로는 2022년도 변화한 학교 시설과 행사, 그리고 학생들의 올해 목표 달성률 등이 있었다.



▲ 2022 용마대동제 만족도 조사

102명의 학생이 설문에 참여하게 되었다. 올해 우리 대학은 공사를 마치고 학생 식당이 문을 열었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 중 25명(약 25%)이 학생 식당 서비스에 매우 만족과 만족에 응답하였다. 이어 보통이 37명(약 36%),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40명으로 전체의 약 39%를 차지했다. 만족하지 못한 이유로는 '입점한 식장이 적음'이 약 32%, '학생 식당 공간이 협소함'이 약 23%, '학생 식당 내부 시설이 부실함'이 약 15%를 차지했으며 기타가 약 30%였다. 현재 학생 식당에 입점한 식당은 2개 점으로 메뉴가 다양하지 않아 학생들의 학생 식당 이용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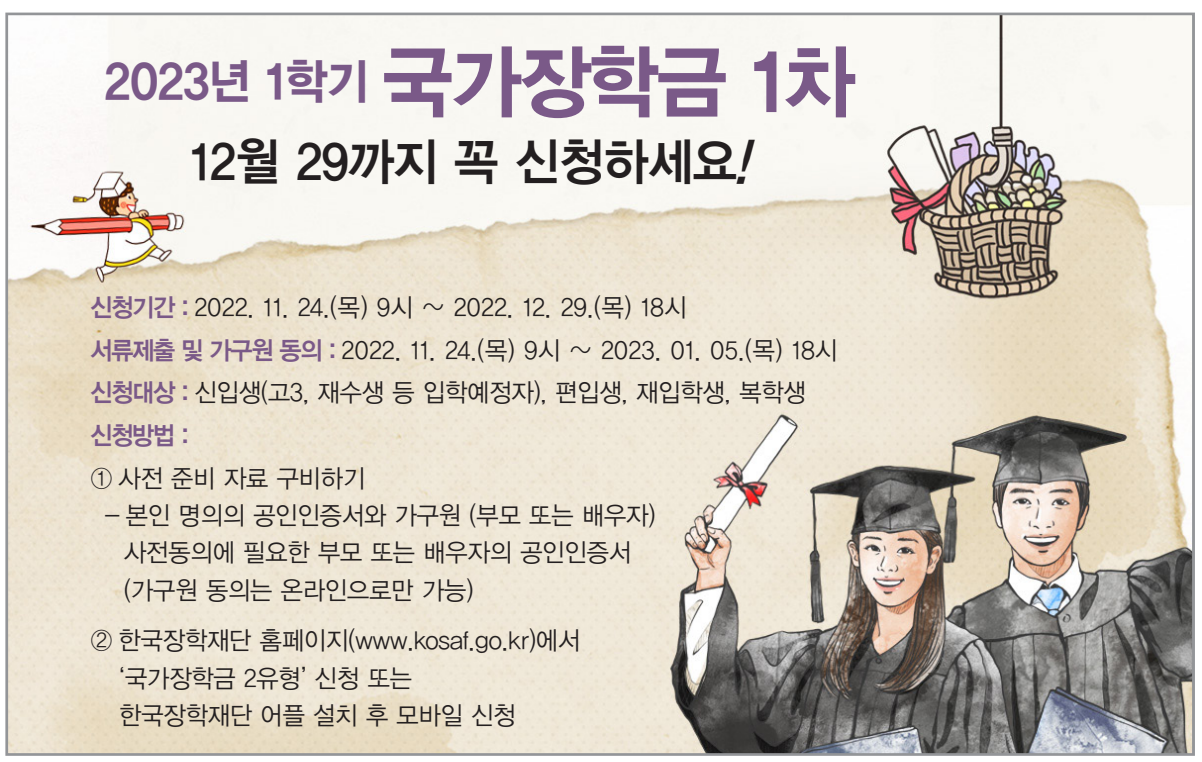
이번 학기에는 호천관 1층에 UP드림과 DO드림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지원서비스센터가 오픈했다. 이는 학생들의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학생지원서비스센터를 이용해본 학생은 전체 중 20명으로 약 20%밖에 되지 않았다. 이용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있는지 몰랐다'가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몰랐다'가 2%, '이용할 필요가 없다'가 약 30%, 기타 1%였다. 우리 대학은 호천관이 위치한 정문보다 후문에 건물이 많아 상대적으로 호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 적기 때문에 호천관에 위치한 학생지원서비스센터를 모르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학생지원서비스센터를 이용해본 학생 중 '시설이 쾌적하고 이용하기 편하다'라는 의견이 전체의 74%였다. 또, 개선할 점으로는 홍보가 부족한 점과 공간이 협소하다는 점을 손꼽았다.

우리 대학에서는 올해 시설뿐만 아니라 대면 행사도 다양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했다. 이 중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행사는 '제48회 용마대동제'이었다. 설문 결과, 매우 만족이 18명, 만족 25명, 보통이 48명, 불만족 7명, 매우 불만족이 4명이었다. 만족한 학생들에게 만족한 이유를 묻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준비한 공연, 이벤트 등 무대 행사가 좋았음'이 약 38%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학과별 부스가 다양해서 좋았음'과 '푸드트럭 음식이 부스에서 음식을 팔 때보다 위생적이어서 좋았음'이 각 28%, 기타가 약 7%이었다. 이와 반대로 불만족한 학생들은 그 이유로 '부스 종류가 적어서 아쉬웠음'이 약 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이어 '푸드트럭 종류가 적어서 아쉬웠음'이 약 23%, '푸드트럭으로만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아쉬웠음. 부스에서도 음식 판매했으면 함'이 20%,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준비한 공연, 이벤트 등 무대 행사 진행이 아쉬웠음'이 약 14%, 기타가 약 16%를 차지했다. 올해 부족했던 점들이 2023년에는 개선되어 많은 학생이 만족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우리 대학이 학생들을 위해 여러 변화를 시도했듯이 학생들도 올해 목표를 가지고 2022를 준비했었다. 설문 응답자 중 41명이 학점 올리기 등 학업 목표를 가진 학생이었으며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준비 목표를 가진 학생이 32명, 여행, 동아리 활동 등 여가 활동 목표를 가진 학생이 16명이었다. 이들 중 올해 그 목표를 이룬 학생은 약 42명이었다. 목표가 있었으나 이루지 못한 학생들은 노력 부족이 그 이유인 경우가 약 43%, 의지 부족이 32%, 시간 부족이 약 18%, 기타가 약 7%이었다. 노력이 부족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생들이 2023년에는 올해와 같은 이유로 실패하지 않기를 바란다.

허승주 기자 rosaho1016@gmail.com

이도해 기자 dohae1336@gmail.com



Contents

1 면 종합	서일대생의 2022
2 면 보도	제39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3 면 보도	4)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환경개선 방안
7 면 특집	미디어출판학과 30주년
8 면 인터뷰	컴퓨닉스, 유별난 여행

알 려 드 립 니 다

- **12월 8일 ~ 14일 :** 2학기 보강기간(15주차)
- **12월 15일 ~ 21일 :** 2학기 기말고사기간(16주차)
- **12월 15일 ~ 26일 :** 2학기 성적입력기간
- **12월 26일 ~ 1월 13일 :** 동계 계절학기 개시 및 수강기간
- **12월 27일 ~ 28일 :** 2학기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12월 29일 ~ 30일 :** 2학기 성적정정 및 성적열람기간

보도기사



제39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미래의 우리 대학을 위한 소중한 한 표

지난 11월 우리 대학에서는 제39대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일정은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1일 18시까지 지덕관 2층 대의원회실에서 후보자 등록,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선거운동, 11월 21일에는 누리관, 호천관에서 투표, 11월 22일에 게시판 및 각 학과 단톡방에 당선자 공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 우리 대학 총학생회장단 투표를 하는 우리 대학 학생들

후보자들의 입후보 자격으로는 우리 학교 재학생으로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자, 전 학기 평균 성적이 2.5(C+) 이상인 자,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 사실이 없는 자, 재학생 500명 이상 추천을 받은 자에게 입후보 자격 조건이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게는 피선거권이 없다.

제39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는 총 2팀의 후보자가 등록하였다. 기호 1번 총학생회장 후보자는 소프트웨어공학과 21학번 구상준 학생, 부총학생회장 후보자는 소프트웨어공학과 18학번 조현진 학생과 소프트웨어공학과 21학번 김예원 학생이다. 기호 2번 총학생회장 후보자는 정보통신공학과 21학번 박태현 학생, 부총학생회장 후보자로는 소프트웨어공학과 19학번 김기곤 학생과 정보통신공학과 22학번 백채령 학생이 출마했다.

후보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담은 공약을 발표하였다. 기호 1번 후보자들은 CHANGE 공약으로 교내 건물 개편, 행사와 각종 복지 재개, 교내 개선 문제 보완, 활발하고 적극적인 소통, 졸업생과 함께하는 미래, 더욱 폭넓은 학습 활동의 6가지 공약을 제시하였다. 기호 2번 후보자들은 과방개설, 카톡 채널 개설, 주차장 증설, 쉼터 증설 및 개설, 물품대여, 행사증진의 6가지 공약을 제시하였다.

11월 21일 선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11월 22일 각 학과 단톡방에 제39대 총학생회장단 당선 공고가 올라왔다. 투표 결과 투표자명 부등재 선거인수는 4,877명이며 투표자 수는 1,474명으로 전체의 30.2%가 투표에 참여하였다. 투표 결과 기호 1번 950표(64.4%), 기호 2번 409표(27.8%), 무효 115표(7.8%)로 기호 1번이 당선되었다.

당선된 기호 1번 당선인들은 "항상 학생의 편에서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며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뜻을 전하였다. 당선인들은 앞선 선거 때 발표한 CHANGE 공약으로 교내 건물 개편을 위하여 학생회관 구축, 각 건물 편의시설 및 휴게 공간 개편, 교내 주차장 수용인원 확대를 하겠다고 밝혔고 행사와 각종 복지 재개를 위하여 시험 기간 도서관 24시간 개방, 축제, 체육대회, 농촌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 재개, 샤워실과 체육관 상시 이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교내 개선 문제 보완을 위해 학생 식당 가격 인하 및 품질 개선, 교내의 냉방과 난방 시설 최적화, 셔틀버스 운영시간 및 노선 확대를 하겠다고 밝혔고 활발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분기별 학생간담회 개최, 교내 건의함 설치, 총학생회 홈페이지 및 SNS 활성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졸업생과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졸업 앨범 재시행, 취업박람회 추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더욱 폭넓은 학습 활동을 위해 교양 교과목 개편, 융합코스 참여 학과 확대, 전공에 특화된 현장 실습 기회 확대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39대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통해 더 나은 우리 대학을 만들기 위해 수고한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를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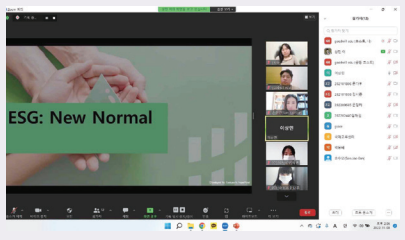
김다연 기자 dydh0131@gmail.com

기획보도 1

글로벌 스피치 콘테스트 개최

글로벌 인재를 꿈꾸며

우리 대학 국제교류센터는 지난 8일 25명의 학생과 혁신지원사업 누리인재 프로그램의 과정 중 하나인 글로벌 스피치 콘테스트를 진행했다.



▲ 글로벌 스피치 콘테스트 진행 영상

스피치 콘테스트는 누리인재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영어, 일본어 등 다양한 외국어 전문 강사들의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 과정은 물론, 학생들의 스피치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단순한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닌, 프로그램 진행 중에 나타나는 학생들의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에 대한 세세한 분석과 전문적인 클리닉을 통하여 완성도와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학생들은 글로벌 스피치 콘테스트를 통하여 사회적인 이슈와 창의적인 주제를 기본 스피치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및 외국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 대학 국제교류센터장은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서일대학교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고, 나아가 국내 취업뿐 아니라 해외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또, 국제교류센터는 추후 중국어 콘테스트도 진행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국제교류센터는 한국어교육원 업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업무, 국외대학 및 교육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 국외대학 및 교육기관과의 학생 교류 업무에 관한 업무와 혁신지원사업 진행, 누리인재 프로그램, 서일인재 양성 프로그램,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 진행, 재학생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지원 기자 easycircle21@gmail.com

기획보도 2

제93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 행사 개최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잇다

우리 대학은 지난 11월 3일 제93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홍학관 다목적홀에서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100여 명이 참석해 대면으로 기념식을 진행하여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우리 대학을 빛낸 학생들에게 공로상을 시상했으며, 공로상 수상은 학과공로 부문, 학생 자치활동 부문, 사회봉사 부문, 대외수상/표창 부문, 기초질서 부문, 총 5개 부문의 공로자를 선정해 우리 대학 김영철 총장이 시상했다.



▲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시상식 사진

학과공로는 학과장의 추천으로 받는 상으로 이가영 학생 외 총 56명이 수상하였다. 학생 자치활동 부문은 학보사, 방송국, 동아리 등 학교 자치기구들이 수여하는 상이다. 학생 자치활동 부문에는 이도해, 이지원 학생 외 총 12명이 수상하였다. 사회봉사 부문은 1월 1일부터 특정 기간까지 봉사 시간을 100시간 이상 채운 학생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민아 학생 외 총 7명이 수상하였다. 대외수상 부문은 외부에서 수상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여하며 송채민 학생 외 총 4명이 수상하였다. 기초질서 캠페인 부문은 서일지킴이로 활동한 학생 중 누적 점수가 가장 높은 3명을 선정하여 수상하였다. 기초질서 캠페인 부문에는 김필모 학생 외 총 3명이 수상하였다.

김영철 총장은 축사를 통해 "사사로운 이익 추구와 자신의 안위에만 집착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을 아파하고 우리 모두의 가치를 드높여 줄 줄 아는 사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돼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장해언 기자 haeeon0416@gmail.com

심층보도

우리가 지키는 지구

쉽게 할 수 있는 일상 속 환경 보호



지구의 환경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이 환경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무심코 간과했을 수도 있는 환경 파괴 행동을 돌아봄과 동시에 지구를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시리즈 순서

1) 생활 필수 요소인 물의 부족
2) 쓰레기로 넘치는 매립지, 쓰레기 대란
3) 지구를 위협하는 이상기후
4)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환경개선 방안

환경위기시계라고 불리는 것이 있다. 이는 환경전문가들이 환경 파괴에 따른 인류 생존의 위기감을 시간으로 표시한 것으로 1992년부터 전 세계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정부기구(NGO), 학계, 기업 등의 환경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표해 오고 있다. 환경위기시계가 0~3시이면 '좋음'을 나타내며 3~6시는 '불안', 6~9시는 '심각', 9~12시는 '위험'한 상태를 뜻한다. 2022년의 환경위기시계의 시각은 '위험' 단계에 속해있는 9시 35분이다. 시계가 정각에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사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개인의 환경개선 방안은 어렵지도 시간이 많이 들지도 복잡하지도 않다.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상 속 환경 보호 중 첫 번째로 분리수거가 있다. 올바른 분리수거를 통해 쓰레기를 재활용하게 되면 토양을 비롯한 모든 환경 오염을 줄여주고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나오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여러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의 경우 라벨, 상표, 뚜껑 등을 분리 및 제거 후 용기 안의 내용물을 모두 비워야 하고 벽면에 이물질이 있다면 닦거나 헹궈서 버려야 한다. 만약 치약과 같이 제거하기 어려운 다른 소재가 섞여 있다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여 버려야 한다. 페트병의 경우 무색과 유색을 섞지 않고 분리하여 배출하고 라벨과 뚜껑 분리, 찌그러트려 부피를 줄여 분리 배출해주면 된다.



▲ 2022년 환경위기시계 (환경재단 제공)

우유, 주스 팩과 같은 종이류는 깨끗하게 씻어 말린 후 종이류로 분리 배출하면 된다. 만약 플라스틱 뚜껑이 달려 있다면 분리해 플라스틱으로 배출해주면 된다. 책의 경우 표지, 스프링을 제거한 후 분리수거하여야 하며 택배 상자 또한 테이프, 송장 등을 제거한 후 납작하게 만들어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종이류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영수증, 전단지에 사용하는 코팅 종이, 각종 라벨, 색지 등은 일반쓰레기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유리류는 내부 이물질 제거 및 뚜껑과 라벨 등의 다른 재질을 분리해주면 된다. 깨진 유리, 거울, 전구, 도자기 등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므로 마대자루를 구입해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스티로폼은 흰색인 경우, 운송장과 테이프를 포함한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며 비닐은 깨끗하게 헹궈 접거나 묶지 않고 펼친 상태로 배출해야 한다. 그 외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재활용 마크 표시를 확인하여 버려주면 된다.

두 번째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일상의 실천이 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를 감소시키는 승용차 요일제 지키기,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있고 식목일에 이산화탄소 흡수원인 나무 심기,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 가스를 유발하는 에어컨 냉난방, 스프레이 사용 줄이기 등이 있다.

세 번째로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한 일상의 실천 방안이다. 수질오염은 일반적인 가정생활에서 하수도로 버려지는 물인 생활하수가 가장 큰 원인이다. 주요 오염 물질로 음식물 찌꺼기, 식용유, 세제 등이 있으며 음식은 먹을 만큼만 만들어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는 것과 식기의 기름은 설거지 전 따로 닦아내기, 샴푸, 비누, 세제는 필요한 양만큼만 사용하기가 있다. 독성 물질과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된 담배꽁초를 하수구에 버리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한 일상의 환경 보호 방법 중 하나다.

이렇듯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소개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방안에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한 일회용품 사용 지양하기, 천연 제품 및 환경마크를 받은 제품 사용하기, 환경 문제에 꾸준한 관심 가지기 등 개인의 작고 지속적인 실천이 모였을 때 모두의 실천이 되고 하나뿐인 지구를 지킬 수 있다. 그동안 환경 보호에 소홀했다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하기를 바라며 지구의 오염 속도를 줄일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윤이담 기자 nooyuneo.o@gmail.com

학생의 목소리

학보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받는 사람: 패션산업학과 조교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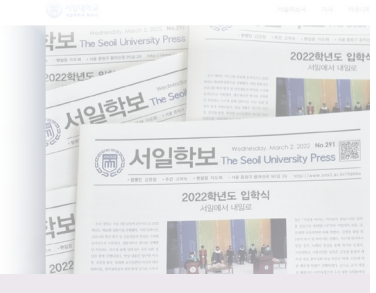
조교님 저를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심에 감사드려요♥

– 보내는 사람: 패션산업학과 22학번 조수빈

받는 사람: 유아교육학과 20학번 최호정

호정아 마지막 실습까지 수고했어! 우리 졸업하고 서로 원하는 곳으로 취업하고 돈 벌어서 같이 여행가자!! 대학 다니는 동안 친구해 줘서 고마워 ;)

– 보내는 사람: 익명



교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학보사에서 대신 전해드립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랜덤으로 당첨자를 선별하여 학보에 메시지가 실린 학생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신청은 재학생만 가능하며 받는 사람은 학교 관계자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서일학보사 인스타그램(@seoil_press)으로 학과, 학번, 이름, 연락처와 함께 받는 사람,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학생 INTERVIEW

제일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은?



▲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22학번 김채현

엄밀히 따지자면 캐롤은 아니겠지만, Taylor Swift의 Snow on the Beach를 소개합니다. 또한 sweet nothing도요. 캐롤이라는 주제를 처음 받았을 때부터 원체 캐롤을 잘 듣지 않아 테일러 스위프트를 소개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최근 낸 앨범으로 단숨에 차트에 올라섰으니 팝송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으면 그를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테일러를 안 지는 오래되었지만, 그의 곡을 찾아 듣게 된 계기는 Letters To Juliet 영화에 맞춰 Love Story 자막을 입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입니다. Snow on the Beach 가사 중 '될 되까지 되는 척하는 것도 괜찮아, 사실이 될 때까지. 마치 바다에 내려앉는 눈처럼.'이란 가사가 테일러가 알아낸 '고통을 대하는 법'이라 느꼈습니다. 콩콩 뛰는 듯한 곡들이, 다가올 겨울에 어울리는 파음을 내고 있습니다. 테일러의 신 앨범인 'Midnights'와 함께 겨울을 지새워보심은 어떨까요.

지역사회

중랑구 '한글과 망우이야기' 전시 개최

역사와 문화의 공존, 중랑망우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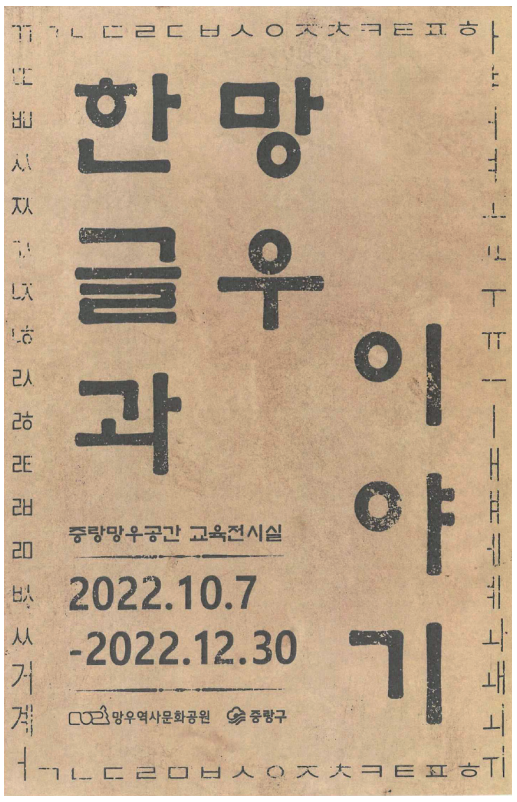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위치한 중랑망우공간 교육전시실에서 '한글과 망우이야기' 기획전시를 오는 12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영면한 국어학자들의 업적을 통해 한글의 역사와 발전을 돌아보면서 한글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감사함을 깨닫기 위한 자리로 기획되어 지난 10월 7일 개최됐다.

전시를 통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배경과 과정을 다룬 훈민정음 이야기, 터치스크린을 통한 한글 창제부터 현재 한글 맞춤법이 제정되기까지의 한글의 역사와 조선어학회와 한글 보존을 위한 노력, 망우역사문화공원의 국어학자들과 그들의 소개와 업적에 대해 관람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일제강점기 초등학교 국어교재인 '보통학교조선어독본'을 아이들의 목소리로 녹음한 음성교재로 100년 전 한국어 음성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한글 체험존에서는 두벌식, 네벌식 아날로그 타자기 체험도 가능하다.

전시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다.

망우역사문화공원에는 종두법 보급에 힘쓰며 한글 연구에 이바지한 공이 큰 지석영, 조선어학회 회원으로 맞춤법통일안제정위원과 표준말사정위원등을 지낸 이탁, 조선어학연구회를 조직해 '조선어학'을 출간한 박승빈 등 국어학자들이 잠들어 있다.



▲ 한글과 망우 이야기 포스터 (망우역사문화공원 제공)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근현대사의 보고인 망우역사문화공원에는 국어 발전에 기여하신 국어학자분들이 계신다. 전시를 통해 그들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원이 품은 인문학적 가치를 살려 교육적, 역사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 사회는 올바른 한글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메신저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줄임말 등을 자주 사용하고 외래어 사용이 잦아졌다. 이런 상황에 적응된 대학생들이 잘못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옳은 표현으로 알고 쓰는 경우도 많다. 난무하는 외래어 사용에 익숙해져 있었다면 이번 전시 관람을 통해 한글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의 기본적인 사항은 스스로 지켜가며 올바른 한글 사용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인지예 기자 alsrn896328@gmail.com
신태희 기자 tlsxogml03@gmail.com

서일소식

학생과 함께하는 우리 대학

소공과 학생들과 함께 학보사 웹사이트 개발

2022년 상반기부터 서일학보사는 소프트웨어공학과와 함께 학보사 웹사이트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학보사 주간 교수와 편집장, 소프트웨어공학과 이광현 교수, 소프트웨어공학과 3학년 윤영서 학생, 김수연 학생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 웹사이트 개발 회의

2021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한 학보사 웹사이트는 우리 대학에서 제공한 것이다. 하지만 제공된 것은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는 다른 사이트들과 같은 형태의 웹사이트이기에 언론사가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일학보사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소프트웨어공학과 학생들과 새롭게 웹사이트를 개발하자는 의견이 나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웹사이트 디자인의 큰 틀은 사설 언론사들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디자인했다. 또, 학보사 측에서 새로운 웹사이트에 원하는 요구사항 등을 전달하고 소프트웨어공학과 개발자 학생들이 이에 대한 의견과 함께 나누는 등의 회의를 몇 차례 거듭하였다.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진행한 끝에 사설 언론사와 같은 디자인과 언론사에 맞는 기자, 관리자 권한 등을 구현할 수 있었다.

이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 10월 우리 대학 정보관리센터 담당자와 논의해본 결과, 학생들과 개발한 웹사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안 및 유지보수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이를 위한 예산안이 배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용까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프로젝트 담당자와 학보사는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여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도해 기자 dohae1336@gmail.com

학과 STORY

컴퓨터전자공학과

컴퓨터와 연계된 디지털 전자분야의 전문가 양성

우리 대학 IT융합 학부에 속해있는 컴퓨터전자공학과는 2002년 3년제 컴퓨터 응용시스템전공으로 신설되었다. 컴퓨터전자공학과는 컴퓨터 및 이와 연계되는 디지털 분야와 응용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최신 직업군으로 부상하고 있는 모바일 및 전자기기 개발 관련 교과과정을 교육하고 있다. 컴퓨터 기반 응용 분야 및 전자 분야를 포함한 창의적인 중견 기술 인력 양성과 컴퓨터 전자 기반 임베디드 및 모바일 소프트웨어 인력 육성에 기반이 되는 전자응용기기 개발 직무를 만족하는 기술 인력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들은 전공으로 전자기학, 전자회로 및 실습,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실습, 인터넷 활용 실습, 컴퓨터구조, 프로그래밍언어실습, ASIC 설계 실습 강의를 수강한다.

우리 대학 컴퓨터전자공학과는 미래의 개발자인 학생들과의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9월 23일에는 박동영 강사를 초청하여 프로그래밍 외 지식을 주제로 강연을 하며 개발자로서의 마음가짐과 다양한 개발 분야에 대한 설명 그리고 다양한 회사들과 회사에 지원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컴퓨터전자공학과 홍보 포스터

컴퓨터전자공학과의 학과 과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는 전자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회로설계산업기사, 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 중등실기교사(전자) 등이 있다. 졸업 후에는 전자, 컴퓨터 및 정보기술 관련 분야,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반도체 및 LCD 분야, 마이크로프로세서 관련 분야, 전자회로 설계 분야, 메카트로닉스 응용 분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프로그래밍 분야 등으로 나아갈 수 있다.

김다연 기자 dydh0131@gmail.com

사 설

대학신문사가 마주한 현실

학생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대학에는 대학신문사, 학보사가 존재한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학보'가 무엇인지, 재학 중인 대학에 신문사가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학신문사만이 아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은 학생사회에 무관심하다.

거리뿐만 아니라 교내에서도 학생들은 항상 핸드폰만 보고 있다. 학교에서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홍보 포스터를 인쇄하여 교내 게시판, 엘리베이터 등 다양하고 많은 곳에 부착해두지만, 학생들은 항상 행사 당일 이를 알게 되고 게시판에 포스터를 부착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게시판을 안 보면 관계자는 홍보를 안 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이에 학과별로 개설된 단톡을 통해 공지해도 읽지 않고 넘어가는 학생 수가 상당하다. 학교에 무관심한 학생들 앞에서 학교는 물론이고 언론사도 아무런 힘이 없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를 오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 대학 학보는 지면으로만 발간되어 그 시간 동안 잊혀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학교는 학보사 웹사이트를 준비했고 작년 겨울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올해에는 SNS 홍보와 기사량을 늘리는 등 웹사이트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노력했다.

학생들이 찾지 않지만, '언젠가는 알아주겠지'라는 희망을 안고 매달 학보를 만들기 위해 기삿거리를 조사하고 취재하여 기사 작성을 진행한다. 발간일에 완성된 학보를 보며 뿌듯함을 느끼지만, 재고로 쌓여 돌아오는 지난 학보를 보면 생각이 많아진다. 학보 홍보를 위해 학생들이 관심 있을 주제로 기사를 쓰거나 이벤트를 진행해보기도 하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이며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학보사는 학생들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다. 학보사뿐만 아니라 학생자치기구들은 많은 학생사회를 지키기 위해 항상 애쓰고 있다.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위해 학생사회에 많은 관심 바란다.

교수칼럼

창의성과 합리성 그 사이 어딘가 우리의 답은 있다

산업경영학과 임웅석 교수



공동체로 모여 사는 사람들 모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과 해야만 하는 일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협업을 해야 하고 성공적으로 일을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이 가진 마음가짐일 것이다. 우리는 '특정한 일을 계획하여 마무리까지 순탄하게 도달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지만 '남들보다 사회적, 지위적으로 우월하게 앞서 나가는 것' 역시 성공이라고 한다. 이런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척도에는 기준이 되는 해답이 있다. '창의성과 합리성 그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만의 답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막연한 한마디 말이 아무렇지 않게 해 온 일이지만 망각하고 지낸 개념이기도 하다.

사전에서는 창의성을 유용과 독창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얼마나 독창적일까?', '내 생각이 얼마나 내 행동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지만 이것을 중요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합리성은 논리적, 경험적인 지식의 규칙에 따라 의식되고 있는 생각이나 행위를 의미하며 얼마나 세상의 이치에 생각이나 행동이 공통적이고 타당한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말하는 성질이다. 사람이 세상과 타협을 해나가는 과정 역시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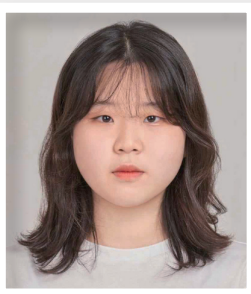
역사의 단편적인 한 예시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삼국지를 어렵지 않게 접해봤을 것이다. 적벽대전은 삼국지의 세 국가 중 촉나라와 오나라 연합군이 위나라와 세력다툼을 할 당시의 이야기이다. 이 전쟁은 공명과 주유, 두 전쟁 영웅의 창의성과 합리성이라는 상반된 특성 사이에서 최고의 수를 찾아낸 실제 사례이다.

창의성과 합리성 사이의 성공 위치는 스스로만이 찾아낼 수 있다. 융합적 접근 대척점에 있는 이 두 성질은 너무나 확고히 다르기에 둘 사이 적절한 위치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은 당연하나 절대적인 성공을 위한 답이기도 하다. 후대에도 널리 알려질 정도로 훌륭한 공명과 주유, 두 영웅처럼 성공하고 싶다면 위의 막연한 한마디 말을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

학생칼럼

중독의 무게

사회복지학과 1학년 김단아



세상은 유혹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한순간에 중독으로 바뀌는 날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우선 중독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자. '특정 행동이 건강과 사회생활에 해가 될 것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집착적 강박'이라는 의미이다.

중독은 평범한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쾌락을 불러일으킨다. 쾌락을 좇는 이들이 집착적 강박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중독으로 바뀐다. 인터넷에 '중독'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꽤 다양한 주제들과 섞여 있다. 노래, 책, 음식 등등 사람들이 다가가기에 가벼운 주제들이 쉽게 눈에 들어온다.

이와 동시에 다루기 예민한 주제들도 볼 수 있다. 요즘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마약을 예로 들어보자. 사람들은 '마약'을 하며 동시에 쾌락과 위험을 경험한다. 마약을 자기 몸에 투입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바로 '뇌'이다. 마약의 성분들은 일부로 도파민을 자극하여 더 큰 자극과 쾌락이 느껴지도록 만들어 낸다. 즉 모든 중독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뇌'인 거다. 인간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뇌이며 가장 위험한 부분이기도 하다. 재미있는 드라마를 발견하면 밤을 새우더라도 봐야 하고 다 시청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은 채워지지만, 그와 동시에 눈이 뻐근하고 몸은 피곤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일종의 중독 아닐까.

호기심이라는 명목만으로 다가가는 행동은 꽤 불안하게 느껴진다. 우리는 늘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며 호기심의 늪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며 살아가자.

서일만평

1년을 돌아보며 그림 지현



사회문화

2022 시사 키워드

포미족, 편도족, 파이어족에 대해 알아보자



▲ 편도족을 위한 초복 맞이 보양식 도시락 출시한 GS25

국내 1인 가구와 싱글족 비중이 늘어나면서 새롭게 '포미족'이라는 소비계층이 부상 중이다. 포미(FORME)족이란 For helath(건강), One(싱글족), Recreation(여가), Moreconvenient(편의), Expensive(고가)의 약자로 자신의 가치를 두는 것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가치지향적 소비 형태를 뜻한다. 포미족의 특징은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다소 비싸더라도 과감히 투자하고, 소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 고가 제품이나 명품에 관심이 많으며 남들의 시선이나 일반적 가치보다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한다.

최근에는 편의점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편도족'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였다. 1인 가구,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편도족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제 편의점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30~50%까지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신조어로 파이어족이 있다. 이는 경제적 자립을 통하여 빠른 시기에 은퇴하려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경제적 자립(Financial In dependenxe), 조기 퇴직(Retire Early)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졌다. 고소득과 고학력 전문직을 중심으로 지출을 최소한으로 하여 투자를 늘리며 재정적 자립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이르는 단어이다.

김진희 기자 rhdtka9@gmail.com

경 제

청년도약계좌

5년 안에 5천만 원 모으기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희망적금 비교

자료: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잠정)		청년희망적금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제외)	가입 대상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제외)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소득 요건	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적금형, 투자형 중 선택	투자 형태	적금
월 최대 40만~70만 원	납입 금액	월 최대 50만 원
3~6%(월 지급)	정부 지원금	1년 차 2%, 2년 차 4%(만기 지급)
5년	만기	2년

▲ 청년도약계좌 조건

이듬해 하반기에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지난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2023년 3,527억 7,200만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에 따라 청년 306만 명이 5년 만기로 적금을 들어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도입한 정책형 금융 상품이다. 가입 자격으로는 19~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한다. 5년 동안 월 납입액은 40~70만 원으로,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로 산정했다. 70만 원을 납입할 시에 6%의 지원금이 붙어 총 월 적립액은 74만 2천 원이 된다. 또한 현재의 시장금리 상황 등을 미뤄봤을 때 은행의 이자까지 포함해 만기까지 5천만 원가량의 금액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의 접수는 내년 6월부터 받을 예정이다. 세부 시행 사항은 예산 확정 이후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친 뒤 최종 발표가 된다.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정책 금융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을 재개하지 않고,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며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김도희 기자 rpt6dk@gmail.com

온라인 스펙업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온라인 스펙업 자격증 취득

모집대상 서일대학교 재학생 전체

모집인원 제한 없음

접수기간 22.04.25. 09:00 ~ 23.02.28 18:00

신청방법 학생성공관리시스템 접속 – 비교과프로그램 개설 현황 – 온라인 스펙업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실시기간 22.04.25. 09:00 ~ 23.02.28 18:00

실시장소 온라인(대학연합자격증인증원)

문의 : 대학연합자격증인증원 02-830-8433

특집 1

미디어출판학과 창립 30주년 기념식

우리가 걸어온 30년, 앞으로 걸어갈 100년

지난 10월 18일에 홍학관 지하 2층 다목적실에서 미디어출판학과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진행됐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이루어졌다. 1부는 개회 및 내외빈 소개, 30주년 기념사업 위원장 기념사, 축사 및 축하 영상 등으로 구성되었고 이어지는 2부는 재학생 대표인사 및 작품소개가 진행되었다.

학과 30주년 기념사업 위원장 기념사를 맡은 한주리 교수는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내외빈 여러분. 미디어출판학과 30주년을 맞아 우리가 걸어온 30년,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100년 이 자리에 함께 그 의미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기념비적인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내외분께 드리는 감사와 함께 앞으로도 학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다. 뒤이어 "사실 올해는 여러모로 의미 있는 해입니다. 저희 과에서 학사 학위과정을 개설한 이후 제1회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3년제 학과로 변화하며 첫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위해서 저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고 명실상부한 서울 유일의 미디어 출판 전문 인력 양성 학과로 자리매김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지금까지 학과가 쌓아온 노력과 더불어 새롭게 개편된 학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학과장인 김진두 교수는 "항상 서일대학교와 미디어출판학과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시 동문회를 재결성하고 홈커밍데이에 오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연어의 마음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연어가 산란하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을 쳐서 자기가 태어난 하천에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서 알을 낳고 자기는 희생하여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교에 대해 가진 애정과 희생이 연어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 미디어출판학과 창립 30주년 기념식

사랑은 미움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힘들었던 기억도 그리움 앞에서는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의 추억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라며 모교에 대한 애정을 연어의 산란 과정에 빗대어 표현했다.

동문위원장 원앤원북스 박종명 대표는 "앞으로 5년 후에는 미디어출판학과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서일대학교의 간판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우리 과가 대표학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중에 더욱더 필요한 것은 바로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분들의 관심 어린 애정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지금처럼 아픈 시기를 견뎌왔던 우리의 노력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며 미디어출판학과에 대한 우리 대학의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는 인사말을 전했다.

미디어출판학과 졸업전시회 A존에서 F존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A존은 〈10, 20주년〉으로 미디어출판학과의 시작을 알리는 구역이다. 과가 10주년, 20주년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볼 수 있다. B존은 〈30주년〉으로 30주년을 맞는 미디어출판학과를 보여주는 구역이다. 30주년을 맞으면서 미디어출판학과가 앞으로 어떻게 달려갈 것인지 볼 수 있다.

C존은 〈미출의 미래〉로 미디어출판학과가 향후 100년 동안 만들어나갈 미래 비전을 담은 구역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디어 출판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종이책을 넘어 디지털 퍼블리싱 확장으로 전자책, AR 콘텐츠 등을 배우며 발전해가는 과정을 담았다. D존은 〈미출의 현재〉로 현재 미디어출판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작품을 담은 구역이다. 2년 동안 출판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기술 및 콘텐츠를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한 결과물들을 전시했다.

E존은 〈미출의 심화〉로 2021년도부터 운영하는 미디어출판학과 전공심화과정 학생들이 기획한 구역이다. 학교의 산업현장 연계 강호를 통하여 2년 과정을 넘어 출판 현장의 요구와 현장 중심 실무교육으로 도출된 작품들을 전시했다. F존은 〈이벤트〉로 이벤트와 학과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구역이다. 학과 동문 발전 기금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배너 거치와 전시회 이벤트를 볼 수 있고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었다.

윤이담 기자 nooyuneo.o@gmail.com
인지예 기자 alsrn8963@naver.com

독자와 함께 만드는 학내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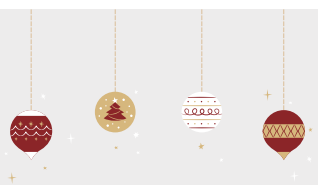
서일학보에서는 학내 구성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일대 학보사
연락처: 02-490-7567

서일학보 디자인 및 인쇄: 진영DPI (T. 02-2263-3388)

특집 2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장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12월에 들어서며 연말이 가까워짐과 동시에 대표 기념일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 크리스마스는 캐롤 감상, 크리스마스 관련 영화 시청, 소중한 사람과 크리스마스 명소 방문하기 등 하루를 보내는 방법이 저마다 다를 것이다. 올해에도 다양한 곳에서 크리스마스를 위한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하고 있으며 그중 방문할만한 장소 세 곳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롯데월드다. 롯데월드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시즌별로 진행하는 페스티벌 중 하나인 '미라클 윈터'를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미라클 윈터'에서는 동화 '성냥팔이 소녀'를 각색한 스테이지 쇼,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여러 장소에 마련된 크리스마스 콘셉트의 포토존, 산타의 미라클 프레젠트 이벤트를 진행하며 이 밖에도 다양한 시즌 굿즈와 시즌 푸드를 판매한다.

두 번째로 청도 프로방스에서 진행하는 크리스마스 산타 마을 빛 축제가 있다. 청도 프로방스는 프랑스의 정감


▲ 현대백화점 더 현대 서울 내부 (현대백화점 제공)

있는 프로방스 마을을 청도에 그대로 재현한 곳으로 크리스마스면 산타 마을 빛 축제를 개최한다. 해당 축제는 지난달 12일을 시작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하며 형형색색의 불빛들로 꾸며진 거리 곳곳에 다양한 포토존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여러 소품을 감상할 수 있어 크리스마스 분위기 만끽과 동시에 보는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는 여의도에 위치한 더 현대 서울이다. 더 현대 서울에서는 5층 사운즈 포레스트에 크리스마스 콘셉트로 꾸민 H 빌리지가 마련되어 있다. 1,000평 규모의 사운즈 포레스트에 크기 13m의 크리스마스트리를 중심으로 120여 그루의 크리스마스트리와 북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연상하는 크리스마스 마을이 꾸며져 있다. 크리스마스 마을의 오두막은 총 11채이고 포토존으로 꾸며진 곳들이 많아 추억을 남기기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매년 연말 각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크리스마스 행사들이 있지만 10.29 참사로 인해 행사를 중단하거나 조정 중에 있다. 추억을 쌓으며 즐거운 휴일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행복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길 바란다.

신태희 기자 tlsxogml03@gmail.com

인터뷰 1

게임 한 판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날리자!

IT동아리 '컴퓨닉스'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컴퓨닉스 회장이자 정보통신학과 21학번 계한슬이라고 합니다.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저희는 IT 동아리인 만큼 컴퓨터 관련 활동들을 주로 하는데요, 주로 선후배, 동기들끼리 디스코드로 게임을 하면서 친목을 쌓는 활동을 주로 합니다. 또한, 방학 때 자격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저희끼리 어렵지 않고 쉽게 자격증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원들끼리 함께 친목을 쌓고 있습니다.



▲ 컴퓨닉스 회장 계한슬

컴퓨터나 IT를 잘 모르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나요?

저희는 과와 상관없이 컴퓨터를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 무조건 환영입니다. 친구를 사귀고 싶은 분들도 언제든지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시할 예정인 활동에는 어떤 게 있나요?

방학 때 자격증 공부를 계획 중입니다. 쉬운 자격증부터 같이 지식을 공유하면서 공부할 생각입니다. 또, 시험이 끝나면 스트레스를 풀 겸 PC방을 가서 게임 활동을 즐기고, 겨울 방학에는 동아리원들끼리 롤 대회, 발로란트 대회, 롤체 대회 등 여러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면 MT, 박람회, 전시회를 가는 활동도 계획 중입니다.

컴퓨닉스만의 특별한 활동이 있을까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IT나 컴퓨터를 좋아하는 분들이 모인 동아리다시피 컴퓨터 관련 활동들을 하는 것이 특별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년부터 새로운 회장님께 여러 의견, 조언을 드리면서 더욱 많은 컴퓨닉스만의 특별한 활동들을 할 예정이니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년도는 코로나로 인하여 하고 싶은 활동들을 많이 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활동을 준비 중이니 다들 많이 들어오셔서 재미있는 동아리 활동을 즐겨주시고 동아리원분들의 기억 한편에 작아도 좋으니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지예 기자 alsrn8963@naver.com

인터뷰 2

학우들과 즐거운 추억 쌓기!

여행 동아리 '유별난 여행'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별난 여행 회장 정승기입니다.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유별난 여행은 여행 동아리인 만큼 선배, 후배, 동기 및 다양한 학년과 과 학생이 모여 여행을 가고 회식을 하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자유로운 동아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활동에 변화된 점이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었는데 그 중 여행 동아리인 유별난 여행은 특히 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아쉬웠던 점은 다수의 인원이 함께 여행하지 못했던 점이지만 현재는 점점 풀리는 추세라서 이번 학기로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여행 동아리 '유별난 여행'

부원들이 말하는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장소는 어디인가요?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상황에 놓여 여행을 많이 가지는 못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자주 간 여행지인 가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별난 여행만의 특별한 활동이 있을까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마음 편하게 놀러 가 관광과 회식 등 여행 자체를 즐기면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자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별난 여행은 우리 대학의 유일한 여행 동아리입니다. 누구나 가입해 마음 편하게 여행을 즐기면 되는 동아리이고 다양한 학우분들과 친해질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이담 기자 nooyuneo.o@gmail.com